

특명! 키스트 10 의과학연구센터 下

KIST의 비밀을 밝혀라



키스트 분들은
너무 친절해.
내가 임무를 수행하는 게
오히려 나쁜 짓이
아닐까?

* '무헤드 박사'와 'RS-8호'의 이름은 서울 무남초등학교 5학년 김세현 학생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글 김경우 기자·그림 김준



지난 줄거리 : 스틸로가 배신을 했다고 판단한 고향 별에서 스킨로라는 자객을 지구로 보낸다. 한편 스틸로는 그것도 모른 채 공원을 방황하고 있다가 무헤드 박사가 만든 로봇 스틸로의 공격을 받고 심하게 다친다. 하지만 의과학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로부터 2주 후 스킨로를 태운 우주선이 지구에 도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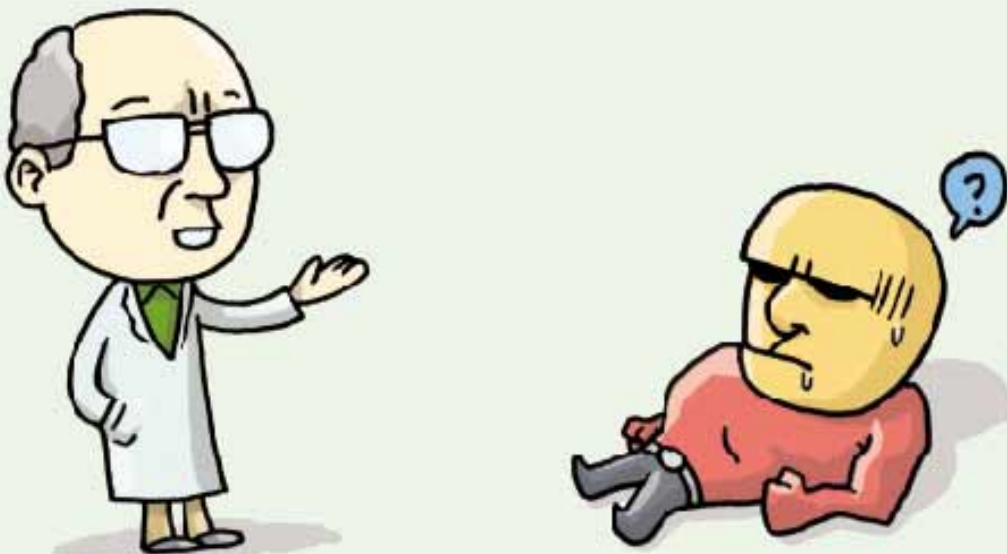




실시간 분자영상기술

실시간 분자영상기술은 생명공학기술(B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방사선기술(RT) 등의 첨단 기술이 총집합된 의료영상기술이야.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과학·공학 기술이 합쳐졌기 때문에 세포 단위의 병까지 알아 낼 수 있다구. 세포나 유전자 단위에서 생기는 미세한 생물학적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영상화할 수 있지. 약물을 투입해 병을 진단하는데 이상이 있는 세포 내에서 색깔이 달라지는 형광단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단다.

이전까지는 X선 촬영이나 CT 촬영을 통해 병을 진단하거나, 아니면 직접 몸을 열어 봐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거라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지.





먹는 항암제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기 때문에 암 치료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지. 그런데 암은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도 너무 고통스러워.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항암제 중 하나인 '탁솔'은 장 속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주사를 통해 주입했지. 그런데 이 방식은 몸에 부작용이 많이 생겨.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연구센터에서 2004년에 개발한 먹는 항암제를 이용하면 그런 부작용 없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 장 속에서도 탁솔이 잘 흡수되도록 만든 거지. 이 먹는 항암제를 이용하면 고통 없이 암 치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거롭게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치료가 가능하단다.





스킬로,
몸은 어때?
이제 안 아파?

응...



거 봐! 키스트 분들은
정말 훌륭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덕분에 너나 나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잖아.



마... 맞아.
만약 키스트의 기술이
없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지구에서 죽었겠지.



휴... 이러니까
내가 임무 완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맞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게다가 너는 널 혼내 주려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줬어.
고맙다.



헤헤,
당당한 걸
갖고...



그런 너를
혼내 주려 했다니
미안하다. 스틸로.

괜찮아!

한편 무헤드 박사와 로봇 스틸로는...

그런데 내 로봇의
한쪽 팔은 어딜 간 거지?
금방 찾아 줄게,
기다리려무나!



외계인마저 감동시키는 키스트의 첨단 기술!

의 과학 연구센터편 끝